도내 어울림학교 지원 대폭 확대

전북교육청, 농어촌학교 활성화 위해… 올해 큰 변화 '유형별 운영비 차등 지원'

학생 유입 많은 학교에 추가 운영비 지원 · 통학버스 지원 기준 10명으로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입을 돕는 전북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대표 정책이다.

올해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106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4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3개교 등 총 153개교가 운영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유형별 운영비 차등 지원이다.

학생 유입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입 학생 비율과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학교에는 공모 재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통학구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기존 13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어울림학교 워크숍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올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 소외계층 대상 촘촘한 지원에 '초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평생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평생교육 추진계획은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전년 대비 시간제교원 20%, 전일제 교원 66%)가 인상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문화관 재구조화 사업을 마무리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함께 책읽는 문화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책 나눔은 올해도 지속된다.

한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함께해서 더 특별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게 올해의 목표"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 성황리

우석대-군장대-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동 개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개설한 '이주민 생활지원사'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진행된 수료식에는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과 양향숙 군장대학교 LiFE 2.0 사업단장, 수료생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교육과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 Life 2.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일부터 4주간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 이해 △이주민과의 효과적 소통 기술 △문화적 차이 극복 전략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 △이주민 심리적·정서적 지원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습 중심의 교육과 국내 이주민들의 생활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석대학교는 군장대학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개설한 '이주민 생활지원사'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우석대학교 본관 5층 우석홀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이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이주민 지원산업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생들의 영어 실력 '쑥쑥'

전북교육청, 교원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교원과 중등 영어 교원으로, 한 번에 100명씩 총 두 차례 운영된다.

이에 교원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20분씩 북미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화상수업을 듣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3~4월 희망 교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원 외국어 수업능력 향상 연수, 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며 "교원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해상풍력 확대 방안 · RE100 실현 열띤 토론

국립군산대 강기원 교수, 에너지기술연 풍력연구단 교류 세미나

국립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강기원 교수는 최근, 군산 에이본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RIS 과제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유틸리티 가동률 향상기술 및 RE100 전주기 지원체계 플랫폼 운영시스템' 사업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단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와 RE100 전주기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윈드코리아, ㈜이지컴퍼지트, ㈜컴퍼니위 등이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였다.

세미나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단의 곽성조 책임연구원, 손은국 선임연구원, 강민상 기술원 등 산·학·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해상풍력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1일 차에는 △풍력발전시스템 국내외 시험기관(RETL) 현황 및 대응방안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을 위한 출력성능 시험 표준 기술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세미나 2일 차에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동향 및 지원항만 적용 사례 발표 이후 전북지역 해상풍력의 확대방안과 이를 통한 RE100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과 산·학·연 관계자 간 활발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최근 군산 에이본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단 교류 세미나'. 〈사진=국립군산대학교 제공〉

국립군산대학교 강기원 교수는 세미나에 대한 소감으로 "정부 출연 연구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RE100 실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 학교 업무지원 나이스 상담센터 운영

교직원 · 학생 데이터 관리, 학부모 대상 서비스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학교 현장 나이스(NEIS) 업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부모 대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상담센터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미래교육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업무협약을 토대로 상담센터 업무를 도울 특수행정실무사 3명을 채용했다.

장익 원장은 "나이스 상담센터는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지원을 하게 된다"며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평가 최고 등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원광대는 고등학생 대상 취업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사업 운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고교생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일삶사이(1-3-4-2) 커리어 성장경로 서비스를 활용한 평생학습 기반 교육 체계를 마련해 고교생의 사회 및 직업 현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